

지자체, 보행·자전거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인천시 교통안전과 녹색교통팀
2026.1.5.

보행자전거과 기반시설팀
2026.1.26.

인천시, '킵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 추진

인천시가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킵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송도 학원가 2개 구간과 부평 테마의 거리 1개 구간 등 총 3개 도로를 대상으로 전동킵보드 운행이 제한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용 증가에 따른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시는 자치구 수요조사와 인천경찰청 교통안전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후보 구간 7곳 가운데 사고 위험이 높은 3곳을 통행금지 구간으로 선정하였다.

인천시는 해당 구간에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계도와 단속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시는 그동안 전동킵보드 무단 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견인 조치와 점자블록 주·정차 방지 스티커 부착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해 왔다. 앞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대전시, '자전거도로 정비 표준(안)' 마련

대전시가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광역시 최초로 '자전거도로 정비 표준(안)'을 마련하였다. 시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높이고 자전거도로의 단절을 줄이기 위해 도로 여건과 이용 실태를 반영한 맞춤형 정비 기준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안에 따르면 도로 신설 시 폭 20m 이상 구간에는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우선 적용하고, 20m 미만 구간에는 분리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기존 도로의 경우 보도 폭이 2.7m 이상이면 분리형 겸용도로, 2.0~2.7m 구간은 비분리형 겸용도로, 2.0m 미만 구간은 보도로 환원하는 등 세부 정비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고유색 아스팔트 포장과 교차부 고원식 교차로 적용, 터널·지하차도 구간의 비분리형 도로 등 안전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기준도 포함되었다. 대전시는 이번 표준안을 향후 개발사업과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Shutterstock

